재외동포청 **보도자료**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. 11. 11.(수)

세계한상대회 경제교류, 중국 상하이서도 이어간다

- 재외동포청, 스페인·베트남 이어 세 번째 권역별 한상대회 지원
- 중국 국제수입박람회 연계…AI·스마트제조·건강산업 분야 한중 기업 협력 모색
- 참가기업 부스 누적 방문 약 1만 1,600명…계약 체결·현지 유통 협력 등 성과

□ 한상대회에서 형성된 경제인 간 교류와 협력을 연중 이어가기 위한 권역별 한상대회가 중국 상하이에서 열렸다.

○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상하이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'한·중 과학 혁신 및 대건강 산업 협력 포럼·기업연합 전시회'를 지원했다고 밝혔다.

□ 재외동포청은 매년 열리는 한상대회의 교류 성과를 이어가고 실질적인 경제 협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권역별 한상대회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
○ 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인천에서 열린 세계한상대회의 교류 성과를 각 지역의 산업·시장 특성에 맞는 협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, 올해 스페인과 베트남에 이어 세 번째로 지원한 권역별 한상대회다.

○ 현지 동포 경제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별 산업 특성과 시장 환경에 맞는 행사를 기획·운영하고, 재외동포청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.

○ 이를 통해 세계 각지의 한상들이 현지에서 쌓아온 경험과 인적관계를 활용해 국내 기업과 협력하고,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도록 돕고 있다.

□ 이번 행사는 중국 국제수입박람회(CIIE)와 연계해 과학기술과 건강산업 분야의 교류에 중점을 뒀다. 재외동포청과 상해한국상회(한국인회)가 공동 주최하고, 송한과학기술혁신파크가 주관했다.

○ 한국기업연합전시관에는 인공지능(AI), 반도체, 스마트제조, 바이오의약, 의료기기, 화장품, 메디컬뷰티 분야의 기업 및 기관 9곳이 참여해 제품과 기술을 소개하고, 현지 바이어와 제품 공급·유통 및 기술협력 등을 주제로 상담을 진행했다.

○ 행사 기간 중 기업전시관의 부스 방문객 수는 1만 1,630명으로 집계됐으며, 수출 및 투자 상담은 138건이 이루어졌다. 특히 참가기업 중 3개 기업(네이처사랑, 피코덤, 동성스마트테크)은 현지 기업, 투자사와 제품 공급·유통, 기술 교류 등을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향후 실질적 성과로 연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.

○ 7일 열린 포럼에서는 양국 기업과 관계기관이 인공지능(AI)과 반도체, 이차전지, 피부미용 분야의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, 원탁회의를 통해 기술 협력과 투자, 중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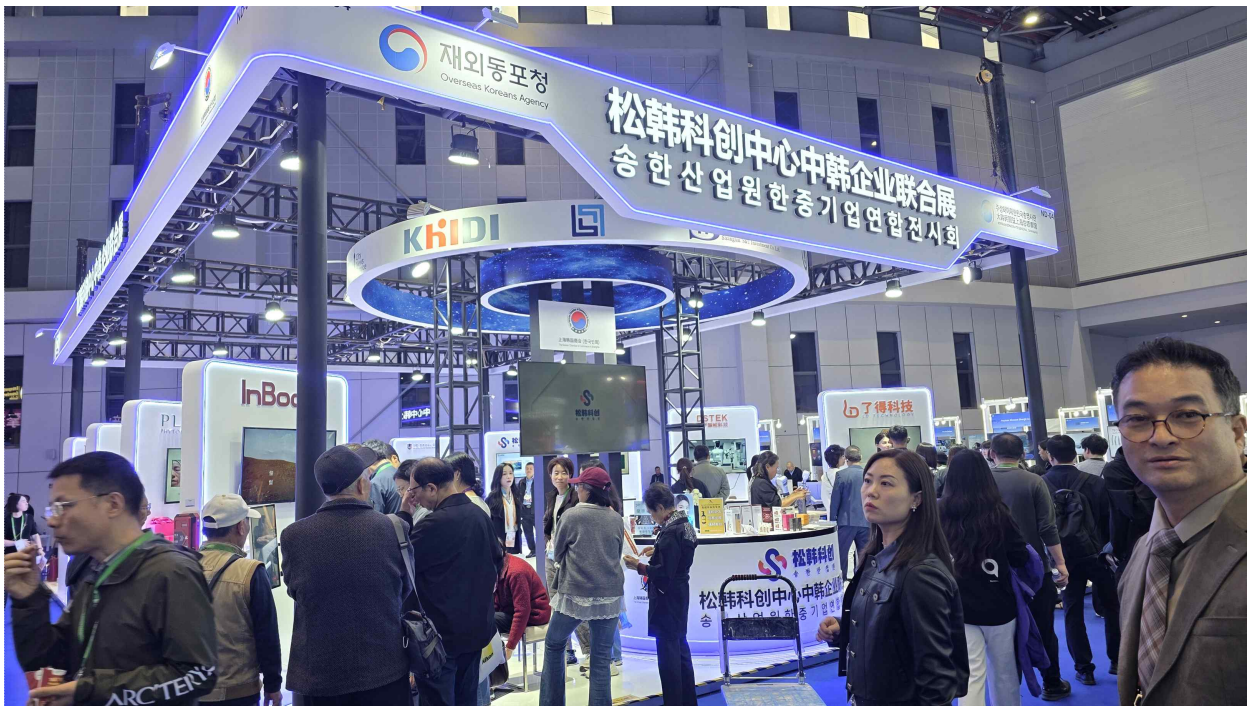
○ 이번 행사는 중국 현지 한상들이 쌓아온 사업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양국 기업의 협력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.

□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“국내 기업의 기술과 제품이 현지 동포의 경험 및 네트워크와 만나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다”고 강조했다. 이어 “대륙·권역별 한인 네트워크가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동포 사회가 주도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”는 뜻을 밝혔다.

○ 재외동포청은 내년에도 권역별 대회 시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.

붙임 : 행사 사진 2부. 끝.



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동포경제지원과	책임자	과 장 이경아 (032-585-3220)
		담당자	사무관 박민군 (032-585-3297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